

中國 경제개혁의 현황과 전망

李 東 旭

지난 2년간 동유럽과 소련에서 발생한 체제의 변화는 세계에 심각한 충격을 일으켰다.

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사회주의 제도를 실시하였던 소련은 고르바초프의 주도로 1985년부터 시작된 개혁의 실패로 70여년 견지해 온 사회주의체제를 저버리게 되었고 오랫동안 超大強國으로 위엄을 떨치던 소련 제국은 四分五裂되고 고르바초프 본인도 권력의 塔上으로부터 굴러 떨어지고 말았다.

이로부터 많은 사람들은 각기 다른 심정으로 中國의 經濟改革에 대하여 더욱 큰 관심을 모으게 되었다. 中國의 改革이란 무엇인가? 지금 어떻게 進行되고 있는가? 소련개혁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인가?…… 나는 韓國에 도착한 이래 끊임없이 이러한 질문에 봉착하고 있다.

나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韓國독자들에게 中國의 經濟改革에 대하여 소개하려고 한다. 이것은 韓中邦隣友好와 經濟技術協力관계를 발전시키는데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 改革의 背景

마르크스는 19세기 중엽 유럽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분석한 기초 위에서 사회주의이론을 창립하였다. 마르크스는 唯物論의 立場에서부터 생산관계는 반드시 생산력의 발전수준에 適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또 사회주의의 승리는 資本主義生産力の 發展을 前提로 하고 資本主義가 가장 발전한 선진국들에서 同時에만 成功할 수 있다고 強調하였다.

그러나 資本主義의 발전이 썩 뒤떨어진 러시아에서 사회주의운동을 영도한 레닌은 自己들의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회주의혁명은 帝國主義陣營의 제일 薄弱한 고리(環節)의 個別的 國家에서 우선 먼저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을 뿐더러 러시아 10월 혁명을 영도하여 성공시켰다. 또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中國·北韓을 포함한 10여개 국가에서도 社會主義제도를 수립하게 되었는데 그 중 東獨을 제외하고는 모두다 資本主義經濟발전이 매우 뒤떨어진 나라들이었다.

帝國主義陣營의 “제일 薄弱한 고리” 혹은 資本主義發展이 매우 뒤떨어진 나라들에서 그 내부의 심각한 社會·經濟的 모순으로 인하여 社會主義運動을 통하여 낡은 政權을 뒤엎는다는 비교적 쉽게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生産力의 낙후성에 따른 여러가지 여건의 未成熟으로 인하여 새로운 社會制度를 건립하고 또 最終的 成功으로 이끄는데는 매우 큰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었다.

마르크스는 미래에 실현될 사회주의 사회의 基本特徵들에 대한 예측들을 많이 論述하였는데 대체로 다음 세가지로 귀납할 수 있다.

첫째, 社會화된 大産業의 基礎위에서 社會全體成員들이 共同으로 全生産手段을 占有하고 共同으로 노동과 生産管理에 참가한다.

둘째, 社會生産은 完全히 計劃에 따라 실현되며 每個產品 中에 포함된 社會勞動量은 직접 노동시간으로 확정되며 그의 가치를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다.

셋째, 社會生産物의 分配原則은 社會擴大再生産과 社會秩序의 保障에 필요한 부분을 메어낸 다음 每個生産者는 社會를 위하여 貢獻한 만큼 분여 받는다.

즉 “노동에 따라 분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이상 基本原則의 구체적 실시방법에 대해서는 論述하지 않았으며 또 論述할 수도 없었다. 社會全體成員이 어떻게 모든 生産手段을 占有하여야 하며 어떤 형식으로 生産에 대한 共同管理를 實施

할 것인지? 不同한 生産部門과 社會活動 분야에서의 “노동량”을 어떻게 비교하고 계산하여야 하는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마르크스는 論述하지 못했다. 特히 資本主義生産이 充分히 발전하지 못한 조건에서 社會主義혁명이 승리하면 어떠한 政策을 펼쳐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어떤 論述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社會主義制度는 誕生한 첫날부터 여러가지 施行政策들에 대한 論爭에 부딪히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論爭은 어떠한 社會制度에서도 있을 수 있는 것이며 또 이러한 論爭이 自由로운 분위기 속에서 充分히 進行될수록 그 사회는 健康하게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10월혁명 후의 소련에서는 그러한 自由로운 論爭이 불가능하였다. 외부적으로는 금방 태어난 사회주의를 소멸하려는 周邊諸國들의 압력 속에서 自由로운 論爭을 不可能케 했으며 또 스탈린의 독단주의는 論爭의 대상자들에 대한 鎮壓으로 論爭을 종결지으려 했다.

10月革命 直後에 입은 胸部 銃傷으로 病床에 오른 레닌은 遺書에다 스탈린을 自己의 후계자로 동용하지 말 것을 부탁하였다. 그는 다른 방면에서는 스탈린과 같으나 스탈린보다 민주적이고 善良한 사람을 후계자로 선택할 것을 볼셰비크당 중앙위원회에 부탁하였다.

그러나 레닌의 病中에 大權을 틀어쥔 스탈린은 그 권리를 포기하려 하지 않았으며 또 그에게서 권리를 빼앗을만한 그 어떤 역량도 조직되지 못했다.

大權을 잡은 스탈린은 “資本家”, “反革命”, “帝國主義特務” 등등의 죄명으로 자기의 정적들을 鎮壓하였다. 그 基礎 위에서 스탈린은 自己의 주장에 따른 社會主義制度를 소련에 건립하였다. 지금 사람들은 이것을 “스탈린식 사회주의”라고 부르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소련의 원조 하에서 새로 건립된 사회주의 국가들은 부득이하게 이미 30여년의 경험을 가진 소련의 사회주의 경험을 본

받게 되었고 허다한 방면에서 스탈린식 사회주의제도를 移植하게 되었다.

소련을 포함한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그 初期에는 비교적 순조롭게 발전할 수 있었다. 새롭게 땅과 공장의 “主人”으로 된 근로자들은 행복한 미래를 창조하기 위하여 積生的으로 일하여 높은 노동생산성을 나타냈고 또 生産規模가 크지 않은 그 당시에는 計劃管理도 비교적 관찮게 실현되었다.

그러나 스탈린식 사회주의는 얼마가지 않아 그 폐단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國計民生의 일체를 網羅한 計劃管理는 經濟規模의 擴大에 따라 점차 그 한계성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부단히 나타내는 計劃의 錯誤는 大量的 社會財貨의 浪費를 조성하였다.

生産力の 발전수준을 無視한 公有化에 대한 편면적인 추구는 사람들의 生産의욕과 경영의욕을 저하시켰다.

특히 부동한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에 대한 平價基準의 不明確으로 인하여 “노동에 따른 분배”제도는 실제상에서 平均主義分配로 전환되었다. 노동소득 분배에서의 平均主義는 근로자들의 生産적극성과 경영인들의 경영적극성을 말살하였을 뿐더러 學生들의 학습열의마저 말살시켰고 과학기술의 발전을 저해하였다.

또 그 外의 여러가지 원인들로 인하여 발달한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等距離”를 유지하는 試合에서 언제나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었고 심지어 과학기술과 生産能力上에서 발달한 자본주의 나라들과의 격차가 더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스탈린 사망 직후부터 점차 많은 사람들은 스탈린식 사회주의에 대한 개혁을 희망하거나 직접 추진하게 되었다. 그의 제일 첫 대표인물로서 前 소공 중앙제1비서 니키타·셰르게비치·호루시초프를 들 수 있다. 그러나 호루시초프 본인 소질의 제한성과 객관적 환경의 불리한 조건으로 그가 영도한 개혁은 성공하지 못하였다.

고 그 기초 상에서 行政分權의 경제체제를 設想하였다. 그는 傳統體制의 폐단을 너무나 集中하고 너무나도 統制하여(集中過多, 統得過死) 地方, 生産單位와 生産者個人的 積極性을 壓제한 것이라고 歸納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地方, 生産單位와 生産者個人들에게 더욱 많은 권리와 이익을 주어 行政分權의 방법으로 여러 方面의 積極性을 發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毛澤東의 行政分權의 思想에 따라 처음으로 1958년에 전통적 政策集權 체제에 대하여 改革을 進行了다. 그러나 大躍進運動의 失敗로 國民經濟는 崩壞될 위협에 처하게 되었고 그에 대한 수습을 위하여 分散시켰던 권리를 또다시 中央에 集中시켰다.

10년 文化革命期間에 또다시 毛澤東의 行政分權思想을 強調하면서 맹목적으로 地方에 權利를 分散시키는 변혁을 겪게 되었다.

이와 같이 中國의 전통적 사회주의 경제관리 체제는 5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중반에 이르는 20여년간에 4차례의 중대한 변화를 겪었으나 때로는 권리를 集中하고 때로는 권리를 分散시키는 中央과 地方사이의 權力劃分에만 열중하였을 뿐 經濟的方法이 아니라 行政的方法으로 경제를 管理하는 스탈린식 경제체제의 근본 특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혁도 시도하지 못했을 뿐더러 오히려 더욱더 行政管理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갔다.

전통적 관리체제 폐단의 악화와 文化革命期間 기타 요소들의 파괴 작용으로 인하여 文化革命中에 中國의 경제는 재차 破産의 위협에 처하게 되었다.

毛澤東主席이 사망하고 文化革命이 끝남으로서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분위기에서 진정으로 獨自的인 思考를 하게 되었고 나라와 민족의 전도를 위하여서는 전통적인 경제체제에 대하여 심각한 개혁을 진행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나 1950년대 말부터 林彪와 4人邦에 의하여 점차 형성된 毛澤東

그 후 스탈린식 사회주의에 대한 부분적 개혁은 소련과 동유럽 여러 나라에서 부단히 진행되었으나 하나도 성공하지 못하고 말았다.

中國에서도 1950년대 중반부터 스탈린식 체제에 대한 비판과 부분적 개혁을 시도하였으나 전통적 사회주의이론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여 모두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2. 改革을 위한 輿論準備

中華人民共和國이 성립된 후 소련의 경험에 따라 中國에서도 고도로 집중된 經濟體制를 건립하였다. 生産手段에 대한 소유제 방면에서 國營 經濟領導下에 多種 經濟成分이 竝存하던 데로부터 점차 國營과 集團 두 종류의 共有制로 過渡하였으며 또 國民經濟管理體制上에서 計劃管理과 市場調節을 결합시키던 데로부터 점차 고도로 集中된 唯一計劃制로 過渡하였다.

여기에서 반드시 지적하여야 할 것은 中國의 經濟관리체제는 비록 기본상 소련을 모방하였지만 中國歷史傳統의 影響으로 인하여 오히려 소련의 경제체제 보다 더욱 集中되고 더욱 行政權利에 의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고도로 집중된 경제체제는 농업, 수공업과 私營工商業에 대한 “社會主義改造” 活動이 高潮를 이루던 1955년에 모든 경제분야를 지배하게 되었으며 또 그때부터 여러가지 폐단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그때부터 中國에서는 소련의 경험에 따라 건립된 고도로 集中된 경제체제에 대하여 어떠한 변동을 시도하였다. 1956년 4월에 毛澤東主席이 中央政治局會議에서 발표한 《10大關係를 論함》이라는 연설은 제일 집중적 표현이었다.

毛澤東主席은 “中央과 地方의 關係”와 “國家, 生産單位와 生産者個人의 關係” 두 방면으로부터 전통적 行政集權의 경제체제에 대하여 분석하

의 神格化로 인하여 改革者들은 매우 큰 難關에 봉착하게 되었다. 特히 毛澤東의 권리를 계승한 華國峯은 자기권리의 正統性을 나타내기 위하여 毛澤東이 해놓은 일에 대해서는 하나도 고칠 수 없고 또 毛澤東의 指示에 대해서도 한 글자도 고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소평을 대표로 하는 改革의 선구자들은 改革을 위한 輿論準備로 “眞理標準”에 대한 大討論을 발동하였다.

眞理란 人類가 客觀世界에 대한 正確한 認識을 말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어떤 문제에 대한 인식이 眞理인가 아닌가. 즉 그 인식이 옳은가를 틀렸는가 하는 것은 實踐을 경과하여 그 인식이 客觀事物과 부합되는가 안되는가 하는 것을 통하여만 결정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마르크스나 레닌은 많이 論述하였고 특히 毛澤東은 1965년에 “眞理를 驗證하는 唯一한 標準은 實踐이다(實踐是檢驗眞理的 唯一標準)”라고 明確히 지적한바 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사회주의 나라들에서는 사람들의 見解와 行動의 是非標準을 마르크스나 레닌의 著作에서 찾으려 했으며 特히 文化革命期間 中國에서는 毛澤東의 論述을 是非를 가르는 標準으로 삼았고 毛澤東의 指示에 무조건 복종하는 자만이 生存할 수 있었고 조금이라도 의문을 표시하는 者는 과거에 어떠한 공로가 있었던지 불문하고 모두다 무자비하게 “무산계급전정”을 당해야 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는 어떠한 개혁도 상상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眞理標準에 대한 大討論을 통하여 사람들의 思想을 解放시키는 것은 극히 중요한 과제였다.

이미 마르크스나 毛澤東이 眞理標準에 대하여 明確한 論述이 있었고 또 文化革命이 사람들에게 가져다 준 精神과 肉體上의 고통 및 경제상의 낙후와 貧窮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비교적 쉽게 실천은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표준이라는 인식을 회복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부터 사람들은 思想을 解放하고 實事求是, 즉 中國의 實際情況에

서부터 출발하여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개혁을 위한 여론준비의 또 다른 한 방면으로서 반드시 지적하여야 할 것은 文化革命에 대한 비판이다.

등소평을 대표로 하는 中國改革의 主役들 중의 많은 사람들은 文化革命 中の 被害者들이다. 文化革命에 대하여 심각히 비판할수록 改革主役들의 領導地位가 공고하여졌으며 또 改革에 대한 應度는 文化改革에 대한 應도와 연계됨으로서 文化革命에 대한 비판을 통하여 改革에 대한 阻礙力을 최소한도로 감소시켰다.

改革을 위한 이러한 여론 준비는 中國의 改革이 비교적 順利롭게 진행되고 매우 짧은 기간에 큰 성과를 거둘수 있는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3. 성공한 농촌개혁

中國은 “美食之國”이라고 불리울만큼 食文化가 발전하였다. 많은 國際旅行者들은 “미국의 집, 日本의 女子, 中國의 음식”을 선호한다고 할만큼 中國음식은 세계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그러나 改革開放政策을 실시하기 이전까지 文字記錄을 찾아볼 수 있는 수천년 歷史上에서 이 美食之國의 모든 국민을 배불리 먹게한 통치자는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 세계 총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인구를 먹여 살리는 것은 언제나 매우 큰 부담으로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먼 옛날부터 중국사람들 중에는 “民以食爲天”이라는 말이 전해오고 있다. 즉 백성들은 먹는 것을 중시한다. 혹은 백성들은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者를 임금으로 모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먹을 것이 부족한 중에도 제일 배고픈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은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었다. 中國은 역사상에서 農業國으로서 인구의 절대부분이 농업인구였다. 인구의 절대부분을 차지하는 농민들의 먹는 문

제를 해결하는 것은 언제나 제일 큰 사회문제였다. 中國歷史上的 모든 朝代바뀔때는 飢民들의 반항의 힘에 의해 실현되었던 것이다.

中國共產黨은 革命初期부터 농민문제를 매우 중시하였고 中華人民共和國이 건립된 직후부터 인구의 80%를 점하는 농민들의 生活를 개선하는데 큰 중시를 돌렸다.

그러나 生産力の 발전수준을 무시하고 1950년대 초부터 급진적으로 추진된 農業의 集團化(合作化)는 농민들의 生産의욕을 크게 저하시켰다.

生産關係는 生産力の 발전수준에 적응되어야 한다. 生産力の 발전수준에 적응된 生産關係는 生産力の 발전을 촉진하고 반대로 生産力을 발전수준에 적응되지 못한 生産關係는 生産力の 발전을 저해하거나 심지어 生産力을 파괴한다. 生産력의 발전수준을 떠나서는 生産關係의 先進 여부를 운운할 수 없다. 이것은 마르크스 경제이론의 기본 출발점이다. 그러나 中國共產黨은 오랜기간 이 마르크스주의 기본이론을 무시하고 맹목적으로 生産關係의 변화에만 열중하였다. 1952년부터 보편적으로 農業生産互助組를 조직하기 시작했고 1954년에는 初級農業生産合作社를 조직했고 1956년에는 高級農業生産合作社를 조직했으며 또 1958년에는 人民公社를 조직하였다.

毛澤東은 人民公社의 優越性을 “一大二公”이라고 귀납했다. 즉 그 규모가 크고 生産手段에 대한 公有化 정도가 높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볼때 毛澤東은 生産力の 수준을 무시하고 生産關係의 변화에만 열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52년부터 1958년 6년사이에 中國농촌의 生産關係는 4차례의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그 사이에 中國농촌의 生産力, 特別히 生産力の 주요한 요소의 하나인 노동도구는 별로 큰 변화가 없었다. 농촌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2000여년전 孔夫子가 生存하던 시기와 별로 다른점이 없는 노동도구와 生産방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生産력의 발전수준을 무시한 맹목적인 生産關係의 변화는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저하시킴으로서 농촌생산력은 크게 파괴되었다. 특히 10년을 거친 文化革命期間에 그 오류는 극단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생산력의 발전수준을 무시한 集團化와 平均主義분배는 농민들로 하여금 여러가지 구실을 만들어 될 수 있는한 일하러 나가지 않거나 또는 일터에 나가더라도 힘껏 일하지 않는 현상이 만연되어 생산성이 크게 떨어졌다.

그 결과 농민들은 보편적으로 배불리 먹을수 없었으며 많은 농촌들에서는 일년 내내 일하여도 現金分配는 고사하고 오히려 빚을 지게 되었다. 심지어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빚을 더 많이 지는 경우도 있었다. 그것은 허다한 生産隊(人民公社의 基層組織)에서는 一年生産費用이 生産所得을 초과하여 빚을 지면 그 빚을 농민들의 勞動量에 따라 풍기게 되므로 일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빚을 더 많이 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더욱 저하시켜 農産物의 供給量은 극도로 부족하게 되었다. 심각한 개혁을 실시하지 않으면 全盤 國民경제가 파산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中國農村에서의 改革은 政府의 命命에 의하여 시작된 것이 아니라 安徽省 鳳陽縣 농민들의 自發的 行動에 의해 시작되었다. 鳳陽縣은 資源이 풍부하고 水陸交通이 편리하며 기후가 따스하고 雨量이 충족하여 농업생산의 발전에 매우 유리한 고장이다. 그러나 낡은 체제의 속박으로 農業生産과 農民들의 生活은 말이 아니었다.

1978년에 진행된 眞理標準에 대한 討論은 그 縣의 간부와 군중들의 思想을 해방시켰다. 일부 生産隊들에서는 점차 生産隊를 몇개의 生産組로 나누고 小組에 땅을 나누어 請負를 주고 生産量에 따라 分配하는 生産責任制를 실시하였다. 請負責任制는 安徽省 領導者들의 지지 하에 매우 빨리 보급되어 1978년 가을 파종시기에는 전현 농촌의 85%가 生産責任制를 실시하였다. 개별적 生産隊에서는 땅을 농민가정에 나누어 經營하는 戶當責任制를 실시했다. 生産責任制는 鳳陽縣의 농업생산에 놀라운 변화

를 가져왔다. 1979년의 알곡 생산량은 전해보다 49% 증가되었고 인구당 소득은 1978년의 81元에서 150元으로 증가되었다.

이러한 實踐經驗에 따라 1979년 中國共產黨 제11기 4次 中央委員會全體會議에서 통과한 농촌문제에 관한 決議書는 小組에 請負주고 生産量에 따라 분배하는 生産責任制(包工到組, 聯產計酬的 責任制)를 明確히 肯定했다. 그러나 邊強山區나 교통이 불편한 單獨戶를 제외하고는 戶當責任制(包產到戶)는 실시하지 말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政府에서는 政策規制를 한 발자국 풀어 놓으면 농민들은 두 발자국 또는 세 발자국 전진하였다. 어떤 곳에서는 上級을 속이고 戶當請負責任制를 실시했으며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공개적으로 戶當請負責任制를 실시했다. 또 戶當請負責任制를 실시한 농촌들에서는 현저한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中國共產黨中央委員會는 大衆의 창조정신을 존중하여 대중의 實踐經驗을 제때에 종결하고 政策上 調整을 실시했다. 1980년 9월에는 生産이 낙후하고 농민생활이 곤란한 지구에서는 戶當請負責任制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 때부터 戶當請負責任制는 부분적 지구에서 合法性을 갖게 되었다.

그 후 戶當請負責任制는 신속히 보급되어 1982년 6월에는 戶當請負責任制를 실시한 生産隊가 전체의 86.7%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83년 1월 中共中央에서 발표한 《當前 農村經濟政策의 몇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에서 戶當請負責任制에 대한 제한을 완전히 취소하였다. 그 결과 1984년에 96.5%의 農家가 戶當請負責任制를 실시하였으며 中國 歷史上 최고의 알곡生産量을 실현했다.

戶當請負責任制의 실시에 따라 人民公社는 生産組織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와 동시에 人民公社, 生産大隊, 生産隊의 정권조직으로서의 기능을 점차 鄉政府, 農民委員會, 農民小組로 대체함으로써 1984년 말에는 人民公社는 실제상 완전히 해체되었다.

4. 多種 경제성분의 발전

中華人民共和國이 성립된 직후 재국주의 국가들이 중국에서의 特權을 취소하고 官僚資本을 몰수하여 國有로 하였으며 지주들의 토지를 몰수하여 땅 없는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로부터 中國에는 國營경제, 合作경제, 國家資本主義經濟, 資本主義경제와 個體경제 등 다섯가지 경제成分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1950년대 중반에 강력히 추진된 社會主義改造運動 중에서 國家資本主義경제, 자본주의경제와 개체경제는 신속히 국영경제와 合作경제로 전환되었다.

특히 文化革命期間에 “資本主義 꼬리(尾巴)”를 끊어 버린다는 구호 하에 小集體로부터 大集體로 過渡하고 集體로부터 全民所有(國家所有)로 過渡하고 個體經濟를 취소하는 운동을 벌였다. 그 결과 1976년에는 國營經濟와 集體經濟를 포함한 所有制경제가 99.8%를 점하였다.

앞에서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생산력의 발전수준을 무시한 公有化와 平均主義分配方法은 생산성을 저하시킴으로서 국가경제상황은 매우 어려워졌다. 많지 않은 자금은 國民경제에 필수적인 重點產業에 投入되고 나면 國民경제에 “次要的”인 그러나 人民들의 생활에는 필수적인 생필품생산에는 얼마 投入될 수 없어 시장에 충족히 공급될 수 있는 생필품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들의 손에는 적지 않은 자금이 있었으나 쓸자리가 없었다. 시장에서 상품공급이 부족하고 또 생산부문에 대한 개인 투자가 허용되지 않았으므로 그 돈들은 부족한 상품공급에 더욱 큰 압력으로 존재하였다.

더욱 엄중한 것은 일자리를 기다리는 失業者가 대량으로 존재하여 사회안전에 큰 위험요소로 되었다. 또 中國에서는 매년 1,500만 내지 1,700

만명의 勞動力이 증가하는데 단지 국가재정으로서는 그들에게 충분히 일 자리를 제공해 주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이러한 실정에 근거하여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는 社會主義公有制를 主體로 하고 개체경제와 私營경제를 포함한 기타 경제成分의 적당한 발전을 허용 및 고무 격려하는 정책을 제정 실시하였다. 또 다같이 부유해진다는 구호 하에서 실재상 다같이 貧窮한 상황을 개변하기 위하여 소수 사람들이 우선 먼저 부유해지는 방침을 채택하였다.

개인들이 생산부문 혹은 유통부문에 投資하여 자기의 노동에 의해 먼저 부유해지는 것을 허용하였을 뿐더러 금융과 세제상에서 지지하였다. 이와같이 남의 노동력을 고용하지 않고 자신 혹은 자기집 노동력에 의해 경영하는 企業을 中國에서는 個體經濟라고 한다.

個體經濟의 발전에 따라 그 수량이 증가하였을 뿐더러 매개 업체의 경영규모도 커지게 되었다. 경영규모의 확대에 따라 자기집 노동력으로서 는 부족함을 느끼게 되어 고용의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

그러나 雇傭관계는 資本主義착취관계로서 그에 대한 허용 여부는 처음부터 큰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中國 경제학술계에서 이 문제에 관한 첫 논쟁은 安徽省 撫湖市の “바보 수박씨”에 대한 論述이었다.

中國의 北方 사람들은 해바라기를 까기 좋아하고 南方사람들은 닭은 수박씨를 까기 좋아한다. 撫湖市 한 個體戶에서 볏은 수박씨는 특별한 맛으로 매우 잘 팔렸다. 그 사람은 또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하여 자기가 볏은 수박씨에 “바보 수박씨”라는 특수한 商號를 달았다.

“바보 수박씨” 매출량의 증가로 노동력이 부족하였음과 동시에 또 많은 사람들은 그의 기술을 배우기 위하여 무상으로 일해주는 學徒들이 늘어나게 됨으로서 일부사람들은 이것은 資本主義착취관계의 回生이라고 비난 함으로서 논쟁이 벌어졌다.

여러차례 반복된 논쟁의 결과 이러한 고용관계는 비록 자본주의 착취 관계에 속하지만 이러한 소량의 착취관계는 中國의 社會主義性質을 개변할 수 없으며 시장공급을 늘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해결해 줄 수 있으며 또 국가에서는 稅收를 통하여 재정수입을 늘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웃점이 있다는 결론을 가져왔다.

그러나 그 고용 숫자는 얼마로 제한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차례의 論爭을 거쳤는데 처음에는 한 업체에서 3명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으며 그 다음에는 7명, 또 후에는 15명으로 제한하려 하다가 나중에는 아무런 제한도 하지 않기도 하였다.

중국에서는 이와 같이 산생된 고용노동자를 사용하는 기업체들을 私營 경제라고 한다.

그 외에 中國에서는 外國資本과 先進技術을 도입하여 설립된 中外合資企業, 中外合作企業과 外資企業이 신속히 증가하고 있다.

총적으로 現在 中國에는 全民所有制의 國營경제, 集體경제, 個體경제, 私營경제와 外國資本을 도입하여 형성된 “三資企業” 및 其他經濟成分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이들 중에서 國營경제와 集體경제는 社會主義性質의 公有制경제이고 기타 부분은 非社會主義性質의 경제成分이다.

그러나 公有制經濟는 國家경제生活에서 절대적 우세를 점하고 있다. 1989년 현재 公有制經濟가 창조한 工農業生產額은 工農業生產總額의 91.8%를 차지하며 公有制경제부문의 상품 매출액은 전 사회 상품매출액의 80% 이상을 점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타 경제成分의 일정한 발전은 中國에서 公有制경제가 절대적 우세를 차지하는 정황을 개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中共 제13차 黨大會의 報告는 “당전에 全民所有制 以外의 기타 경제성분이 너무 많이 발전된 것이 아니라 아직 매우 부족하다. 도시와 농촌에서의 合作경제, 個體경제와 私營경제에 대하여 모두가 계속 발전하도록 고무 장려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5. 分配제도에 대한 개혁

分配제도에 대한 제일 큰 변혁은 多種分配形式의 生産이다.

분배관계와 분배형식은 생산방식에 따라 결정된다. 생산에 참가하는 일정한 形式은 분배에 참가하는 형식을 결정한다.

中國에서 개혁, 개방정책을 실시하기 이전에는 公有制를 제외한 기타 경제성분은 거의 없었다. 公有制경제에서는 생산수단을 생산자들의 共同所有로 하는 것 만큼 생산자들은 평등한 지위에서 생산에 참가하므로 그 생산물의 분배는 오직 매개 생산자들의 공헌한 노동량에 따라 분배하게 된다. 즉 노동에 따른 분배(按勞分配)원칙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개혁, 개방을 거쳐 공유경제를 주체로 기타 경제성분이 동시에 존재하게된 만큼 분배형식에도 노동에 따른 분배를 주체로 기타 분배형식이 동시에 존재하게 되었다. 즉 자본에 따른 분배와 경영에 따른 분배 등 기타 분배형식이 동시에 이용되게 되었다.

분배제도에 대한 두번째 큰 변혁은 國營 경제부문에서 “철 밥그릇(鐵飯碗)”을 부셔버리는 것이다.

改革以前에 中國의 國營業體에서는 일단 한사람을 採用한 다음에는 범죄분자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해고할 수 없었다. 또 평균주의 분배원칙으로 인하여 일을 잘하나 못하나, 또 일을 많이 하나 적게하나 거의 같은 보수를 받았으며 일률로 년한에 따라 송금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일단 국영업체에 들어만 가면 그의 공헌을 불문하고 죽을 때까지 남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제도는 사람들을 게으르게 하였으며 생산성을 저하시켰다. 이와같이 공헌을 따지지 않고 죽을 때까지 보장하는 제도를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鐵 밥그릇”이라고 비유하였다.

지나간 개혁기간에 이 “鐵 밥그릇”을 부셔버리기 위하여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였는데 주요하게는 다음 몇 가지이다.

첫째, 새로 모집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合同制度를 실시했다. 企業에서 모집하는 모든 노동자들은 일률로 勞動合同을 체결해야 한다. 노동합동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합동기가 차면 노동합동의 집행을 끝낸다. 合同雙方의 수요에 따라 재차 合同 체결할 수도 있다.

둘째, 노동조합의 優化試點을 진행했다. 노동조합의 優化란 機構를 精簡한 기초상에서 編制와 定員을 규정하고 우수한 자를 선택하는 원칙에 따라 企業의 영도자로부터 노동자들 중에서 본래의 직무를 고려하지 않고 선택하는 것이다. 선택하고 남는 자에 대해서는 待業者로 처리하고 일정한량의 基本資金만 지불한다.

셋째, 여러가지 종류의 勞動市場을 꾸려 노동력의 流動에 편리를 주고 있다.

네째, 제2 혹은 제3직업의 선택을 허용하고 있다.

분배제도에 대한 개혁에서 또 公有制경제부문에 평균주의를 타파하기 위하여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다.

6. 가격개혁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에서는 일찍이 1950년대 중반부터 전통적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폐단을 발견하고 여러차례 개혁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毛澤東시대의 개혁하려는 노력이 아무런 성취도 거두지 못한 가장 근본적 원인은 전통적인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제일 중요한 약점을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전통체제의 가장 근본적인 약점은 市場의 작용을 무시하고 企業의 상대적 獨立地位를 부인하고 단순히 行政수단으로 경제를 조직, 管理하려

했다는 것이다. 전통적 체제는 行政命令과 指令性計劃으로 資源을 배치하므로 資源을 집중하여 重工業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고 짧은 기간에 비교적 빠른 경제성장속도를 쟁취하는데는 일정한 작용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통체제는 시장작용을 무시함으로 인하여 경제생활 중에서의 대량적인 情報과 動力問題를 해결할 수 없었으며 경제주체의 내재적 활력, 효율과 적극성을 발휘시킬 수 없었으며 오직 政治動員과 精神刺激에 의하여 경제발전을 추동하려 했다. 또 시장기능에 대한 무시로 국민경제는 自我調節능력이 결핍하여 장기간의 지속적이고도 온정한 발전을 실현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市場의 作用을 도입하여 計劃經濟와 市場경제를 결합시키는 것은 中國 경제개혁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그런데 市場경제에서 “보이지 않는 손”-가치법칙은 供給과 需要관계의 변화에 따른 價格의 변화를 통하여 실현된다.

상품가격이 시장에서의 공급과 수요관계의 변화를 민감하게 반영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市場機能이 제대로 작용할 수 있는가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개혁 이전에는 완전히 計劃價格制와 管理價格制를 실시했으므로 價格은 근본상에서 市場에서 供給과 수요의 상황을 민감하게 반영할 수 없었을 뿐더러 사회생산비용도 반영할 수 없었다. 많은 商品들의 市場價格이 商品價値를 엄중하게 탈피함으로써 부동한 생산부문간의 분배의 불합리성을 조성하여 많은 생산자들의 노동의욕을 저하시켰다.

改革의 初期에는 農產物과 石炭 등 일부 상품의 가격을 인상시킴으로써 부동한 商品의 價格比例를 조절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단지 計劃價格을 조절하는 방법으로는 市場기능의 작용을 제대로 발휘시킬 수 없음을 점차 인식하고 1984년부터 가격에 대한 통제를 풀어 놓아 商品價格이 市場에서의 공급과 수요관계의 변화에 따라 자발적으로 결정되게 하는 방향에서 힘쓰고 있다.

그 결과 1985년부터 대부분 농산물과 소비재들은 이미 시장에서의 供給과 수요관계의 변화에 따라 자동적으로 결정되게 되었으며 生産수단은 계획내의 生産부분은 計劃價格에 따라 매매하고 계획을 초과생산한 부분은 市場가격에 따라 매매되게 하였다.

같은 종류의 生産수단이 計劃內部分과 계획을 초과생산한 부분을 계획 가격과 시장가격에 따라 나누어 매매하는 제도를 價格雙軌制라고 한다.

價格雙軌制는 여러가지 폐단을 나타냄으로서 중국에서는 될 수 있는 한 짧은 기간에 취소하려고 하고 있다.

7. 개혁의 앞길은 멀다.

지난 13년간 中國의 경제개혁은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세계여론이 공인하는 바라고 생각한다.

물론 중국을 처음 방문하는 한국사람들은 필연코 중국은 아직도 낙후하구나, 한국 보다 \times 년 뒤떨어 졌구나 하는 인상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점에 대해 한국 관광객을 나무랄 아무런 근거도 없다. 사실 중국은 한국에 비하여 많이 뒤떨어져 있다.

그러나 절대부분 중국국민들이 이 문제를 보는 시각은 좀 다르다. 중국사람들은 오늘의 한국이나 기타 어떤 나라와 비기기 보다는 우선 먼저 자기들의 10여년 전 혹은 그보다 더 오랜 전날과 비기게 된다.

지금 중국사람들 중에는 극히 개별적인 특수한 정치야심을 품은 자들을 제외하고는 지난 10여년간 중국의 경제와 인민생활에서 발생한 뚜렷한 변화를 부인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생활수준이 제고한 정도의 차이로 일부 사람, 특히는 지식계층에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식계층 인사들도 자기생활이 10여년 전보다 크게 향상되었음을 부인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본다.

나는 중국을 20여차 방문하셨다는 한국 어느 연구원 원장님의 말씀을

매우 인상 깊어 들었다. 그분은 매년 중국에 갈 때마다 새로운 발전면모에 놀라움을 느끼며 또 중국의 국제경쟁력이 증강되는 속도에 두려움까지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나는 편쪽의 제한으로 中國의 경제개혁이 취득한 성취에 대하여 일일이 나열하려 하지 않는다. 그와 반대로 中國의 경제개혁이 직면한 일부 문제들을 간단히 소개하고 싶다.

10여년의 개혁을 거쳐 중국의 경제체제는 매우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생산력의 발전을 크게 추동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개혁은 아직까지 낡은 체제에서 新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다. 이 전환기에 부득불 新舊체제가 동시에 존재하게 됨으로서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첫째로 중국의 경제개혁 중에서 제일 현저한 성취를 거둔 농촌개혁도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현단계에서는 농업생산의 발전이 일정한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戶當請負責任制를 실시함으로써 농민들의 생산적극성을 발휘시켜 농업생산이 급속히 발전하였다. 그러나 경영규모가 너무 작아 농업생산의 기계화와 현대화에 어려움을 가져옴으로서 농업생산의 발전이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 농업에 대한 投資부족, 인구의 증가와 農耕地面積의 급속한 감소, 농촌 노동력의 過剩등 원인으로 농촌개혁이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은 매우 많다.

농촌개혁보다 더 어려운 것은 도시에서의 개혁이다. 특히 大·中企業의 경제活力을 제고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1984년부터 경제개혁의 중점을 농촌에서 도시로 돌린다음 大, 中企業의 경제活力을 증강하기 위하여 負債制의 실시, 貨貸制와 주식제도의 실험, 稅制의 개혁, 物價관리체제의 개혁 등 여러가지 조치들을 통하여 비교적 큰 성과들을 거두었지만 그러한 조치들은 또 여러가지 부작용과 부족점들을 나타내고 있다.

그 중 가장 돌출한 문제들은 기업 경영인들이 눈앞 이익만 추구하고

장원한 타산이 부족한 것, 통화팽창, 분배에서의 불공평성과 부패현상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중국경제개혁을 멈춰 세우거나 돌려 세우지는 못할 것이다. 또 오직 더욱 심입된 개혁을 통하여서만이 개혁 중에서 부단히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들을 점차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경제개혁이 이미 매우 큰 성취로 절대부분 國民의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그 어떤 힘도 중국경제개혁의 열차를 멈춰 세우지는 못할 것이다. 특히 88년 以來의 “治理整頓”을 거쳐 금후의 개혁을 위해 보다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여 놓았다고 생각된다.

물론 경험의 부족으로 금후에도 이러 저러한 오류와 곡절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개혁은 꼭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8. 몇가지 강조하고 싶은 문제

이 문장을 끝맺으면서 몇가지 문제를 특별히 강조하고 싶다.

첫째, 中國의 경제개혁은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배반이 아니라 마르크스주의 기본원리에 의한 개혁이라는 것이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생산력의 발전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생산관계의 변화를 추구한 본신은 마르크주의 기본원리에 대한 위반이었다. 또 마르크스가 발달한 자본주의 선진국들에서 동시에 사회주의를 실현했을 때를 전제로 한 여러가지 設想들을 자본주의 경제발전이 극히 미약한 중국에서 교조적으로 실현하려는 것부터도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위반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개혁은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배반이 아니라 그에 따른 개혁이다.

둘째, 중국의 경제개혁은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에로의 개혁이 아니라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개혁이다. 중국에서는 사회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경제특점을 생산수단의 공유제와 노동에 따른 분배제도라

고 본다. 그러므로 이 두점을 견지하는 조건하에서 기타 방면에서는 생산력의 발전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현재 경제가 발전하지 못한 사회주의 초급단계에서는 완전히 공유제와 노동에 따른 분배만 실시할 수는 없고 공유제와 노동에 따른 분배가 주체지위를 보장하는 조건에서 기타 소유제형식과 분배형식의 존재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세계, 중국에서의 민주화 문제이다. 지금 미국 등 나라들의 일부 사람들은 중국의 민주화문제와 인권문제에 대하여 많이 떠들고 있다.

민주주의는 사회의 상부구조에 속하며 경제의 발전에 따라 점차 발전하게 된다. 비록 각 민족의 전통에 따라 일정한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경제가 발전할수록 민주화도 발전하게 마련이다.

또한 경제의 발전수준을 무시한 민주화는 경제의 발전에 불리한 후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만약 한국에서 1960~70년대에 오늘과 같은 민주화를 실시했다면 오늘과 같은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겠는가? 경제발전수준을 무시한 민주화로 인하여 사회안정기반이 파괴되며 경제발전을 이루지 못한 실례는 적지않다고 본다. 또 오늘 한국의 경제발전 단계에서 현재 미국이나 영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민주화정책을 다 받아 들일 수 있겠는가? 그것도 안된다고 본다. 경제발전을 무시한 맹목적인 민주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중국은 1인당 GNP가 겨우 400달러 선에 서있다. 1인당 GNP 400달러 수준에서 경제의 빠른 성장을 보장하면서 오늘의 중국처럼 민주화된 실례는 찾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물론 오늘 중국의 민주화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그러나 개혁의 심입과 경제의 발전에 따라 민주화도 신속히 발전할 것이며 금후 중국의 1인당 GNP가 만달러를 초과할 때에는 현재 세계상의 어느 나라보다도 민주화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